《제3차 〈종군위안부〉 문제아세아련대회의》 공동결의문
(초 안)

《제3차 〈종군위안부〉 문제 아세아련대회의》가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조선의 북과 남의 대표들과 일본, 중국, 필리핀, 대만 대표들과 함께 이전 《종군위안부》들이 참가하였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일제가 패망한지 50년이 되는 오늘까지 《종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대하여 치솟는 울분을 표시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이 더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모든 대표들과 이전 《종군위안부》들은 일본정부가 최근에 추진시키고있는 《민간기금안》이 사실의 보상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책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그 어떤 형식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상정된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① 우리는 일제의 《종군위안부》범죄행위의 진상을 더욱 철저히 고발하며 《종군위안부》피해국 인민들이 이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선전활동을 각방으로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선전활동의 내용과 형식, 방법은 매개 나라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며 활동과정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서로 통보할것이다.

② 우리는 《종군위안부》문제해결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당국의 부당한 립장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것이다.

《종군위안부》문제는 일본정부당국이 책임지고 국가적으로 물어야 할 의무이고 책임이며 그 어떤 다른 현대

로는 절대로 해결될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는 일본정부당국이 과거 조선녀성들과 아세아녀성들에게 끼친 엄중한 죄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며 충분한 보상을 할 때까지 항의규탄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릴것이다.

③ 우리는 《종군위안부》문제해결을 저애하는 온갖 행위들을 반대하여 힘차게 투쟁할것이다.

《종군위안부》문제는 국가간의 합의에 제약될 문제가 아니며 《민간기금》에 의해 처리될수도 없는 문제이다.

우리는 일부 계층이 《종군위안부》에 대한 피해보상을 포기하는 행위, 일본의 과거죄행을 감싸주려고 하는 일체 행위를 저지시기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다.

④ 우리는 《종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북과 남, 나아기서 아세아 여러 나라 녀성들과 녀성단체조직들의 공동행동과 련대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이다.

일제의 《종군위안부》범죄행위는 조선녀성들을 비롯한 아세아 여러 나라 녀성들을 상대로 감행된 국제적성격을 띤 대범죄행위이다.

이 문제해결의 열쇠는 국제적단결의 힘에 달려있다.

우리는 《종군위안부》문제가 피해국들의 상응한 법원과 리익에 맞게 실현되도록 유관국들의 립장과 행동의 인식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것이다.

회의참가자들은 《종군위안부》문제에 관련있는 아세아 나라 각 단체 대표들로 《〈종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아세아련대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하였다.

⑤ 회의참가자들은 서로 련대하여 《종군위안부》문제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때로부터 50년이 되는 올해안으로 반드시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

1995년 2월 일